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선 주요 후보 동행취재 - 새정치연합 조영택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후보가 21일 오전 금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권교체 실현위해 도와달라”

유세 차량서 쪽잠자고 삼시 세끼 해결 새벽 5시 일어나 발로 뛰며 표밭같이 임내현·이개호 의원 등 든든한 지원군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는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의 강행군에도 좀처럼 웃음을 잃지 않았다. 목소리는 쉬어 쇠소리가 나고 몸은 지칠대로 지쳤지만,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초조함에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21일 오후 3시 30분 서구 풍암동 풍금사거리에서 찾은 조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임내현(광주 북구을)·이개호(담양·장성·함평·영광)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 유세에 힘입어 조 후보의 목소리는 커졌고, 간절함도 배어났다.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내후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저 조영택을 선택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교체의

씩을 띄우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광주시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정권교체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힘을 합쳐 새누리당 심판을 주장할 때 야당 심판을 주장하는 후보가 있다”(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에 ‘호남정치 부활’은 없었다. 그 후보는 김대중 정신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무소속 전정배 후보를 겨냥했다.

조 후보는 유세를 마친 뒤 풍금사거리 노점상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상인 정모(여·52)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짜로 이번에는 잘 할 수 있겠어?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겠어?”라며 조 후보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에 조 후보는 정씨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저희 당이 광주시민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고 답했다.

조 후보는 매일 4시간의 수면을 취하

고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하루 세끼를 이동하는 차량에서 김밥이나 빵과 음료수로 때우며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날도 새벽 5시에 기상해 오전 7시 지역 방송국 인터뷰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전남 광주에 내려와 한 노인정에서 눈을 붙인 문재인 대표와 함께 아침 출근 인사를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새벽 이완구 총리의 사의표명 보도를 보고 받은 뒤 광주 지원유세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예정대로 소화했다.

문 대표는 조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이어 사회복지관 두 곳의 주부 노래교실을 잇따라 찾아 마이크를 잡고 “지난 대선 때 다들 마음 편하셨죠”라며 “엄정하게 지지를 모아줬는데 제대로 보답 못해 참 송구스럽다”고 몸을 한껏 낮췄다.

문 대표는 또 “옛날부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딱 새누리당은 부정부패가 심각하지 않은가”라면서 “우리가 힘을 제대로 모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패를 확실히 심판해야만 우리 경제도 살 수 있다”며 “천황” 차단을 시도했다.

/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국회 특위, ‘더내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총보험료 14% → 최대 20% 공무원단체 “지급액 못짜야”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데 국회와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연금 지급액 삭감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에 대한 이견 조율도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정부와 공무원단체 대표, 전문가 등 참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얼마나 올릴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각각 10%로 올리는 ‘1대 1’ 방식을 제시했으나 공무원

단체는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각 9%로, 그 이상은 각각 1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무원 기여율은 8.5%, 정부 부담률은 11.5%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공무원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매칭하는 부담금이 같은 비율로 적립돼야 한다는 입장지만 일부 공무원단체는 부담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무기구는 연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동시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 구조가 된다는 입장을 보는 반면,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깎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기여율·부담률 인상과 지급률 인하 여부를 제외한 쟁점으로는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

소득상한 하향조정 여부 ▲연금액 한시 동결 여부 ▲소득심사제도 도입 여부 ▲신·구 공무원 분리 여부 등이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도 ‘하후상박(下厚上薄)’ 개념의 소득재분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일부 공무원단체는 난색을 표했다.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 대비 70% 수준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단체는 반대했다.

연금 소득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인하는 방안, 연금액 인상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 선출직에 취임하거나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 등은 일부 이견만 조율하면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오는 22일 회의를 추가로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 위원장 등 국회 산자위 전체 의원 오늘 한전·문화전당 방문 활성화 방안 모색

전당 내외부를 견학할 예정이다. 이번 산업위 의원들의 방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철 위원장은 “현재 산업위 소관 많은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라며 “광주·전남의 성장동력중 하나로 꼽히는 한전이 지역과 공생발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한, 산업위 의원들에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김동철·새정치·광산 갑·사진) 여야 의원들이 22일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및 전력자회사 방문, 현장 시찰을 한 뒤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다.

산자위 전체 의원들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직접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김동철 위원장에 따르면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한전과 전력자회사인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등 4곳을 방문해 에너지밸리 추진계획 및 전력수급 안정대책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한전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사를 서울 삼성동에서 나주로 이전했다.

의원들은 이어 광주로 이동해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콘텐트 전시계획 등 브리핑을 받은 뒤

무계감 커진 김무성 당·청 관계 주도할까

성역없는 수사 촉구 선제적 특검 주장 이완구 사태 주도적 역할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 의사 표명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무계감이 커지고 있다.

이 총리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김무성 대표 등 당 핵심부의 ‘사퇴 불가피론’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 출국에 앞서 김 대표를 청와대로

김급히 불러 단독 회동을 갖고 국내 상황 관리를 당부한 것도 그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보게 만든 대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김 대표의 리더십을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안중 리스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가 하면 선제적으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정치적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보였던 여당의 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대응이었다.

심지어 “나부터 대선자금 수사도 받겠다”면서 야당을 역으로 압박해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총리의 ‘거짓말’ 논란

이 불거지면서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자 김 대표는 총리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관철했다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보다는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여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끌고 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결국, 이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 대표는 여권 전체를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간 성안중 파문의 늪에서 빠져나와 수습의 실마리를 찾는 ‘해결사’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적극적 대응으로 당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든 반응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청와대가 주도했던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환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

가슴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협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